5월 ▪ 6월 ▪ 7월 ▪ 8월 2016년

거룩한 사랑 잡지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공식 간행물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는 선교회와 성지

"어떤 진리도 거룩한 사랑을 반대하지 않는다."

제(모린)가 기도방에 들어가자 제가 아버지 하느님의 성심으로 알고 있는 큰 불꽃을 봅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의 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만물의 주님이며 영원한 현재다. 나는 크고 아주 작은 모든 것의 창조주다. 나는 수정의 순간에 각 생명을 창조한다. 나는 각 양심과 그 양심을 덮고 있는 자유의지를 창조한다. 내 지배권은 깊은 바다부터 가장 높은 산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모든 것에 미친다. 나는 너희의 존재까지도 영속시키는 분이다. 그럼에도 나의 주권과 권능에서 떠나 나는 내가 모든 영혼에게 부여한 자유의지를 존중한다. 나는 간섭하지 않는다."

"오늘 나는 이 메신저(messenger 사자 使者)를 통해서 또다시 지상과 접촉한다. 나는 수세기 전에 내가 주었던 법, 곧 십계명을 인류에게 다짐하여 말한다. 너희는 완벽한 것을 개선할 수 없다. 내 계명들에 순종하여라."

아버지 하느님 축일

2016년 8월 7일

"온 땅과 온 인류는 평화와 균형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너희가 내 계명들에 순종하지 않는 한 너희는 이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태내의 생명을 죽이거나 그렇게 하는 이들을 지지할 때 너희는 그 죽음에 책임이 있다. 너희는 악의 순환을 영속하게 한다."

"오늘 여기 성지에서 자애로운 아버지로서 하는 내 말의 은총을 받아들여라. 나의 사랑의 품에서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품을 향해 움직여라. 너희가 내 계명들에 순종하기를 선택하면 나는 너희와 함께 훌륭한 일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

__거룩한 사랑 잡지__는 년 3회에 걸쳐 거룩한 사랑과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여정을 세상에 더 잘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써 출판됩니다.

거룩한 사랑 잡지

2016년 5월 ■ 6월 ■ 7월 ■ 8월

제3권 제2호

목 차

그리스도교의 일치를 지향하는 선교회와 성지	2쪽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 축일	3쪽
하나 되신 성심 축일 행사	4쪽
'천국으로부터의 자세한 메시지들 -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에 대한 이야기'	7쪽
복되신 어머니 생신	8쪽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회 모임	9쪽
영적 여정 - 제18편: 다섯째 심방	10쪽
신성한 사랑의 자녀회	12쪽

HOLY LOVE MINISTRIES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37137 Butternut Ridge Rd.
North Ridgeville, Ohio 44039 USA

성 토마스 아퀴나스
교육 센터: 440-327-8006
선교회 팩스: 440-327-8017
메시지 신청: 440-327-5822
기도 신청: 440-327-8039
기도 신청 이-메일: prayers@holylove.org
선교회 연락: mamshl@holylove.org
자원 봉사자: volunteers@holylove.org
체험담 제출: testimonies@holylove.org
웹사이트: www.holylove.org; www.holylovekorean.com
한국어 옮긴 이: 거룩한 사랑의 종 한인 선교회 Korean Missionary Servants of Holy Love (KMSHL)

Holy Love — An Ecumenical Ministry & Shrine
"No Truth Opposes Holy Love"
www.holylove.org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는 선교회와 성지

"어떤 진리도 거룩한 사랑을 반대하지 않는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에큐메니컬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 입니다. 이 에큐메니컬 선교회와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천국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을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으로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부르십니다.

거룩한 사랑은 사랑의 위대한 두 계명, 곧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은 아버지 하느님의 뜻, 복음 메시지의 실천, 십계명의 구현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은 목격자 모린 스위니 카일 (Maureen Sweeney-Kyle)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시현(示現 vision), 발현, 메시지들은 1985년에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 복되신 어머니, 많은 성인 성녀들께서 거의 매일 모린 자매에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들은 사랑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지향하는 에큐메니컬 (공동 기도) 운동으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의 메시지 인용구가 이 선교회의 목적과 중심점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 선교사업의 영향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하도록 즉,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마음이 회개하도록 하고, 수많은 초자연적 은총이 충만하게 이곳에서 입증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이곳의 선교사업은 모든 세대와 나라와 이데올로기(ideologies 이념, 관념)의 회개를 가져오는 것이다." (고통의 성모님, 2011년 9월 15일/ 자정 기도모임)

"이 선교회의 (기도의) 성지와 메시지들은 모든 사람들이 영감과 은총,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원천으로 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그렇게 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애정 어린 초대에 따르십시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 2012년 1월 20일)

"이 선교사업의 전체적이고 완전한 동기는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거룩한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없애고, 그리하여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이 모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랑은 다양성에 빠진 마음을 다스릴 수는 없다. 온갖 종류의 관심사를 거룩한 사랑에 우선하여 두는 마음은 진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예수님, 2012년 1월 17일) ■

우리는 모든 백성과 모든 종교를 환영합니다. 기도는 보편적 언어입니다.
여기에 순례오는 모두를 기도와 천국이 이 성지에서 제공하는 평화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초대합니다.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 축일

2016년 5월 5일 – 19주년 기념일

(새벽 3시) 성모님께서 갑자기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오늘 내 축일에 아무것도 나를 말릴 수 없다. 찬미 예수님."

"모든 것이 좋은 의복에서 천 조각들처럼 이제 하나로 합치고 있으며, 이 선교회는 그 잠재력에 이르고 있다. 나는 너희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용기를 지니고 있어서 고맙다. 거룩한 사랑 즉,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너희 이웃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가 파멸의 길을 따라가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이웃을 구원의 길로 다시 부르면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를 바로잡아 준다는 뜻이다. 그것이 이 메시지들이 반복해서 베풀어지는 것이다. 천국은 자존심이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숨김 없이 분명히 말한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과 영적으로 건전한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너희의 외모와 행동, 신념과 언어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너희의 온 존재와 삶이 사회에 가장 만족스러운 것과 일치한다. 영적으로 건전한 것은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선 먼저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이 영적으로 건전하면 건전할수록 더욱 그는 문화적으로 받아들일만 한 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 오늘날 너무 많은 죄들이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짐의 영역에 일부가 되고 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랑의 용사로서 비록 우리의 영적으로 건전한 의견들이 어떻게 인기가 없을지라도 이 잘못들에 직면해야 한다."

"나는 언제나 내 딸인 너와 거룩한 사랑을 고수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적으로 건전하고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은총을 줄 것이다. 나는 아무에게도 거룩한 사랑인 내 성심의 피신처를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

화간 씌우기 5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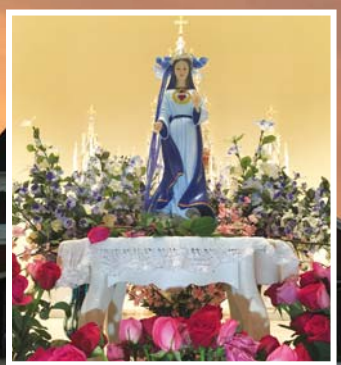
하나 되신 성심의 채플에서 저녁 7시 기도모임

성모님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내 자녀들아,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애쓰는 사람은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에 앞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부디 이해하여라. 이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사회와 어울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누구의 감정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 의해 존경을 받는 것이 그의 목표다. 빛의 자녀들은 이러한 표면적인 방식으로 살 수 없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로서 거룩한 사랑인 사랑의 계명들을 통해 주어진 진리의 빛을 반영해야 한다. 감정을 옹호하거나 자존심을 크게 기대하고 있거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시간이 없다."

"이것들 중 어느것도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영혼들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오직 영혼들을 잃는 것만을 두려워하여라." ■



하나 되신 성심 축일 행사

6월 3일 자정 기도모임

2016년 4월 12일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내가 내 티없는 성심 축일이 시작하는 자정, 곧 예수 성심 대축일과 내 티없는 성심 축일 사이에 하나 된 성심의 벌판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곳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축복할 것이다.

(이 기도모임에서 발현 없음)

2016년 6월 4일
티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축일

(자정 기도모임에서 낭독된 메시지)

성모님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또다시 너희에게 말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나는 사랑하는 여기 이 성지에서 내 성심을 세상에 열고 있다. 나는 여기에서 거룩한 사랑인 내 티없는 성심 내부의 심방을 드러내고 있다. 거룩한 사랑은 내 티없는 성심의 성소(聖所)다. 나는 여기에 오라는 내 부름에 응답하는 각 영혼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항상 이 성지에 있다. 내 성심의 부분이 모든 메시지를 수반한다. 나는 오직 연락이 되기를 원하는 영혼들과 접촉을 가질 수 있다. 너희가 마음을 열게하여 내 티없는 성심에 들어가면 너희는 변형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어머니로서 오직 너희의 행복을 바란다. 모든 은총은 나의 사랑의 키스(kiss, 입맞춤)로서 너희에게 온다. 내 성심의 깊은 곳으로 가는 길을 드러나게 하는 이 메시지들을 통해서 나를 더 잘 알도록 하여라. 나는 개인의 거룩함과 구원을 위한 탐색에서 너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거룩한 사랑을 통해 내 성심의 내면의 경계를 알기 시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해 온 것과 같이 인류가 새 예루살렘 안으로 인도될 수 있기 전에 세상의 마음이 내 성심의 정화하는 불꽃을 지나가야 한다. 많은 사건과 특별한 상황들이 이 정화를 서두를 것이다. 그러나 시련이 많아짐에 따라, 내가 모든 경우에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므로 이 기도 성지에 수반하는 은총들도 또한 그러할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어려움에 처하여 내 아드님께로 돌아갈 많은 사람들을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여라." ■

하나 되신 성심의 벌판에 하나 되신 성심의 성지

– 2016년 6월 3–5일

6월 4일 토요일 저녁 7시 기도모임

2016년 4월 20일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일요일 [2016년 6월 5일]에 있을 메시지와는 별도로 토요 묵주기도 모임 [2016년 6월 4일]에서 읽어서 알려질 메시지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나는 나의 메시지가 낭독되는 동안에 그 기도모임에 참석하는 이들을 축복할 것이다."

2016년 6월 4일
티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축일

성모님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오늘밤 7시 묵주기도에서 나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갈 것이며 모든 사람이 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6월 4일 토요일에 하나 되신 성심의 평신도 형제회에서의 웨인 와이블 (Wayne Weible) 강연

2016년 6월 4일
티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

성모님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모든 찬미."

"오늘 나는 티없는 내 성심을 또다시 너희에게 보여준다. 예수님께서는 이 장소에 세상의 평화와 안전을 맡기고 계신다. 내 성심은 거룩한 사랑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이 기도 성지로 기도하러 오지 말라는 어떤 이유에도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나는 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슬프다.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그러한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대열에 합류하여라. 나는 여기에서 내 성심을 세상에 열어주며 너희의 모든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나는 너희의 청원들을 천국으로 가져 가고 내 아드님의 성심에 놓는 것이 기쁘다." ■

하나 되신 성심의 채플에서 저녁 7시 기도모임

하나 되신 성심의 축일을 위한 6

(이 메시지는 여러 날에 걸쳐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서 주셨습니다.)

우선 저(모린)는 공중에서 고동치는 하나 되신 성심의 성상을 보았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과 복되신 어머니께서 그분들의 성심을 드러내고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작은 어린이들아, 너희 위에 퍼부어 내린 이 폭풍우의 고난을 견디어서 고맙다. 나는 인생의 풍파에서 너희의 보호다."

"이 메시지들과 이 메시지들이 알리는 깊은 영성이 교회 정치와 영적 질투 중에 잃게되는 것이 결코 내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부디 깨달아라. 나는 이 메신저에게 세속적인 권위의 반대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요청하는 모든 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전파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마음들의 회개를 기다리라는 경솔함을 강요한다. 나는 참된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온다. 나는 세상의 마음에 성령의 현존을 회복시키기 위해 온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인류의 마음에서 마음을 압도하고 있는 악을 제거해야 한다. 나는 인간이 이 악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예외를 충분히 알면서, 나는 일반적인 인류에 관해 말하고 있다. 이들은 지극히 비통한 내 성심에 위안을 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류는 나를 그들의 마음의 첫째 자리에 두지 않고 있다. 인간은 영적인 무관심이 원인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는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이데오로기 (ideologies, 관념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죄는 좀처럼 고려되지 않지만, 꺼리김 없이 받아들여지고 시행되는 권리의 형태를 취해 왔다. 이런 습관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감각이 둔하고 너무 보수적이라고 여겨진다. 이와 같이 사탄은 선과 악의 경계선을 없애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명확한 경계선은 내 눈에는 변함이 없다."

"이 혼란의 시대에 내 아버지께서 우리의

월 5일 일요일 오후 3시 기도모임

하나 된 성심에 대한 계시와 함께 나를 보내신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입각한 계시다.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첫째 심방은 내 어머니의 성심, 곧 영혼의 회개다. 뒤이은 각 심방은 영혼을 더 깊이 개인의 거룩함으로, 그리고 마침내 완덕으로 이끈다. 이것은 오늘날 진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는 여정이다. 지금까지는 교회의 리더십은 내가 베푸는 이 선물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고 있다. 나는 오직 사탄만이 영적 완덕에 반대할 것이라는 것을 꼭 지적하고 싶다!"

"영혼은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찾는 데 평생을 바칠 수도 있다. 그 동안 내내 나는 그 영혼에게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과하는 여정의 곧고 좁은 길을 제공한다. 이 여정에 대해 아는 것은 큰 은총이다. 이 여정을 알지만 여행하기를 거절하는 것은 지극히 비통한 내 성심에 더 한층 상처를 입힌다. 한 영혼이 이 거룩한 심방들을 통과하는 영적 여정 없이 구원될 수 있지만 그것은 더 어렵다. 그것은 마치 지도를 버린 후에 보물을 찾는 것과 같다. 이 경우에 보물은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과의 일치다."

"오늘 나는 세상의 마음이 우리의 하나 된 성심과 일치하기를 바라면서 너희에게 왔다. 이것이 이 천국의 개입, 곧 이 선교사업과 여기에서 제공하는 모든 은총의 목적이다. 세상의 미래는 나의 초대에 대한 인류의 응답에 달려 있다."

"나는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하는 구원의 길이다. 내 형제자매들아, 필요한 모든 것에서 계속해서 인내하여라.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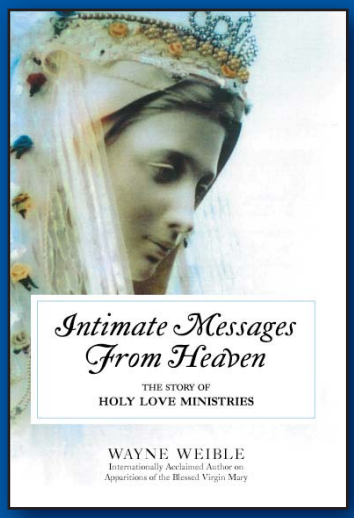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

2016년 6월 6일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이 메시지들과 내 특별한 축복을 통해서 여정을 위한 식량을 받고 있기를 바란다. 너희가 집으로 돌아가면 거룩한 사랑을 전파함으로써 나의 도구가 되어라. 너희 각자는 특정한 은총을 위해서 여기에 초대되었다. 너희는 이 은총을 당장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모든 것을 실현시킨다. 여기에서 나와 내 아드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견디어내서 고맙다."

천국으로부터의 자세한 메시지들



"웨인 (와이블)이 저술한 책은 많은 이의 마음을 터놓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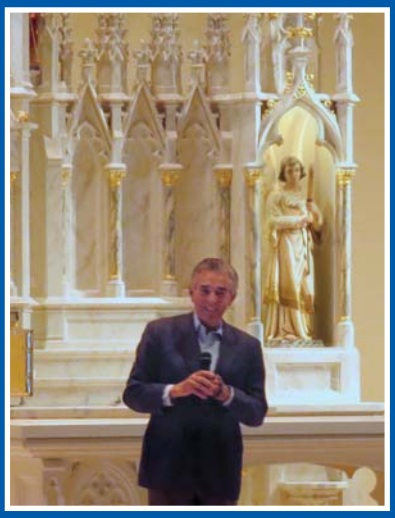
(예수님 - 2016년 5월 28일)

"이 책자는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에 대한 시초부터 현제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성지를 방문하고 영적 그리고 육체적 치유를 경험해 온 순례객들로부터의 많은 증인들을 포함합니다. 이 책자에는 또한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에 대한 나의 객관적인 저널리스트 (journalist, 언론인, 신문인)의 조사 결과와 결론을 포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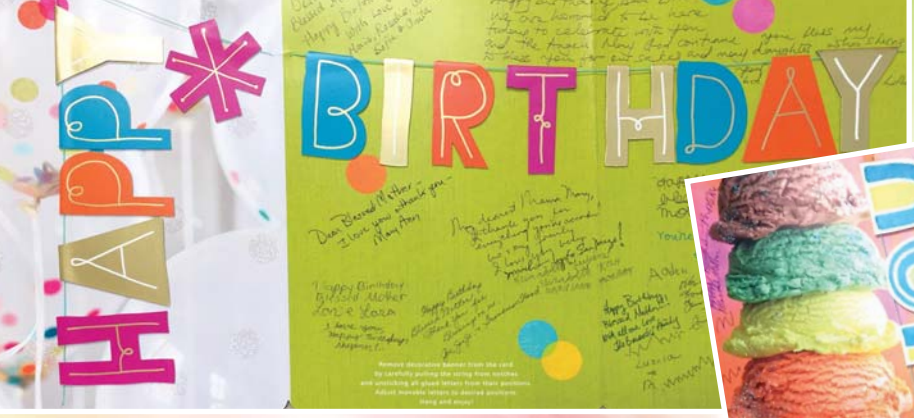
– 웨인 와이블 (Wayne Weible)

책자 구입

성물 센터: Archangel Gabriel Enterprises Inc.
전화 신청: 440-327-4532 Ext. 235
온라인 신청: www.RosaryOfTheUnborn.com
가격: $15.95 + S&H



저명한 마리아 작가, 웨인 와이블께서 그의 새로 발간된 책자를 6월 5일, 하나 되신 성심의 채플에서 소개합니다.



– 2016년 8월 5일 –

성모님 생신

성모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후로서 전부 흰색의 옷을 입으시고 반짝거리는 불빛에 둘러싸여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제(모린)가 성모님께 생신을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모님께서 머리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축하한다. 나는 일반 대중에게 하느님의 뜻을 지지하는 선택을 하기를 촉구하기 위해 또다시 왔다. 어떤 선거에서도 너희는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하느님의 뜻을 반영하는 입후보자를 선택할 책임이 있다. 이런 입후보자가 항상 가장 권력이 강하거나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 이런 입후보자는 언제나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매스 미디어 (mass media, 대중 매체)가 너희를 대신해 결정을 내리게 하지 마라. 너무 자주 이 같은 매스 미디어가 선의 더렵혀진 모습과 악의 진실성이 없는 모습을 소개한다. 이렇게 하여 영혼들이 혼란에 의해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선택으로 이끌어진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너희 선택의 지대한 영향은 너희 대법원을 자유(진보, 개혁)주의로 전복시킬 수도 있고 따라서 이 나라의 불길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너희의 대통령 선택에서 너희는 또한 너희의 대법원과 너희 나라의 미래를 선택하고 있다."

"너희 나라는 테러리스트(terrorist, 폭력주의자) 정권을 지지하면서 여전히 자유국으로서 존속할 수 없다. 한 나라를 지지하는 방법은 많이 있다. 한 방법은 대량 살상(파괴) 무기 개발의 진전을 무시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이러한 노력에 자금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란에서와 같은 테러리스트 정권을 원조하는 것은 자원에도 국가 안전에도 많은 비용이 든다."

"나는 오직 너희에게 내 안내를 제공하고 너희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너희를 격려할 수 있을 뿐이다. 나는 너희가 하느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위해 기도한다." ■

저녁 7시 기도모임

복되신 어머니께서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로 오시고 전부 하얀색으로 옷을 입으셨습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내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아, 이 세상에서의 내 생일인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기도해 주어서 고맙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너희가 내게 주는 선물은 너희가 매일 충실히 바치는 많은 묵주기도과 이 발현들과 메시지들에 대한 너희의 신념이다. 한때 내 티없는 성심의 피신처에 있었으나 더 진보적인 (자유주의의) 생활 양식을 찾아서 떠난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서 부디 나를 도와라."

"오늘밤 내 거룩한 사랑의 축복을 너희에게 내린다." ■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회 제5차 연차 회의

– 2016년 8월 6일 –

8월 6일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기꺼이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회 (CUHA)의 기도모임 구룹의 인도자들이 모이는 제5차 연간 회의를 주최하였습니다. 이 온종일의 회의는 마라나타 샘과 성지의 아퀴나스 센터의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미국, 카나다, 멕시코, 서인도 제도의 여러 곳에서 온 114 명의 기도모임 인도자들 (또는 대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회는 세상의 마음을 하나 되신 성심께 바치는 매일 봉헌 기도를 위해 2012 년 3월 4일에 성모님께서 마련하신 전 세계에 미치는 평신도 협회입니다. 자녀회는 37 나라에 걸쳐 731개의 등록된 기도모임 구룹이 있으며, 2,360명 이상의 회원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거룩한 사랑에 봉헌된 마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금년의 회의를 위해 선택된 주제였습니다.

강사들은 그 주제의 여러 면을 검토하였습니다. 거룩한 사랑에 봉헌된 마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서론의 담화로 시작하여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일치, 목표를 정한 기도, 한 성직자의 회개 이야기, 지금 이 시대에 인내력을 포함하는 강의들이 따랐습니다.

짧은 발표에서 또한 거룩한 사랑의 웹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료들과 검색 기능을 소개했습니다.

6월 행사 주말 동안에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서 그의 최근의 책자 ***"Intimate Messages from Heaven – The Story of Holy Love Ministries"*** ["천국으로부터 친밀한 메시지들 -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이야기"]를 소개하는 저명한 마리아 저자이고 메주고리예에 대한 강사인 웨인 와이블 (Wayne Weible)의 녹음된 강연이 그랬었던 것처럼, 2015년 스튜벤빌 (Steubenville, 오하이오 주 동부, 오하이오 강에 면한 도시) 청년 회의에서 작성된 마이크 슈미츠 (Mike Schmitz) 신부님의 정력적인 설교 비디오 (video, 비디오테이프)가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각 기도모임 구룹 선도자에게 이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노력과 희생에 대한 감사 선물로서 웨인의 책 한 권씩 주어 보냈습니다.

금년에는 항상 인기 있는 **의식 행렬과 장미 폐막식**이 저녁 7시 기도모임과 함께 하나 되신 성심의 채플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기도모임 구룹 선도자들이 채플 입구에서 정렬했을 때 그들은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 성상의 발 밑에 놓을 가지가 긴 아름다운 장미 한 송이씩 받았습니다. CUHA 자녀회 기가 감동을 자아내는 찬가, 나는 네 엄마에 맞추어 중앙 통로를 따르는 행렬을 선두에서 인도했으며, 각 기도모임 선도자는 그들의 장미송이를 경건하게 우리의 천국의 어머니 발밑에 놓았습니다.

행렬은 자녀회 기를 복되신 어머니께 경의를 표하는 놀랄 만큼 아름다운 여러 색깔의 장미의 한 다발 옆에 놓으므로써 끝을 맺었습니다. 기도 행사가 따랐습니다.

기도모임 구룹 선도자들을 그들이 체험하고 배운 모든 것을 그들의 기도모임 구룹과 공유하고 싶어 하며 귀향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신 성심의 자녀회 회원들 모두가 이 회의의 작별 메시지를 명심하고 세상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거룩한 사랑을 통해 연락을 취하기를** 권고합니다. ■

연락을 취하기를...

제18편 - 영적 여정

하나 되신 성심의 다섯째 심방: 하느님의 뜻과 일치 *(제4부)*

영적 여정에 대한 이 논문 시리즈의 제17편의 끝을 맺으면서, 우리는 2008년 7월 11일에 성 미카엘 대천사가 주신 메시지에서 대천사가 논의한 것과 같이 **하나 되신 성심의 다섯째 심방**에 거하는 영혼 안에 일어나는 거룩함의 완덕에 언급했습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는 하느님의 섭리에 완전한 신뢰가 하느님의 뜻과의 완전한 일치로 표현되는 거룩함의 완덕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하나 되신 성심의 다섯째 심방**에 달하고 그런 다음 그 안에서 살면서 영혼은 그것에 의해서 그의 영성이 대표적인 천상의 성인들과 천사들의 높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 냅니다. 지상에서 영혼이 경험하는 가장 가까운 상태는 미사에서 거룩한 성체를 모시는 성사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2003년 2월 8일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주신 메시지에서 밝혀졌습니다.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체를 통하여 하느님의 뜻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원히 세상에 현존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는 **다섯째 심방**은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각자에게 주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영혼의 하나 되신 성심의 다섯째 심방**과의 상호 작용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의 천국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 곧, 하느님의 뜻에서 그분과 완전한 일치를 성취하기 위해서, 영혼은 매 현 순간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 안에서 사는 것이 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는 중요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2007년 7월 27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하는 영적 여정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을 더 한층 돕고자 저를 보내셨습니다. 성부와 성자께서는 영혼이 어떤 주어진 순간에 상호 작용할 심방을 정하실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사실 영혼은 어떤 현 순간에 한 심방 이상에서 상호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영혼은 성덕을 쌓고 있을 수 있고 **[셋째 심방]**, 그와 동시에 그는 그 같은 성덕에 어긋나는 어떤 잘못을 정화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 심방].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넷째 심방**에 있는 모든 힘은 **다섯째**와 **여섯째 심방**에서 일치합니다."*

*"그러니 영혼은 종종 한꺼번에 많은 심방들과 협조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겸손한 영혼은 그 자신이 **첫째 심방**에 조차도 들어갈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처럼, 영적 여정은 다양하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각자의 거룩함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은 주어진 매 현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사랑의 정도입니다. 이것을 알고, 영혼은 매 현 순간 거룩한 사랑을 향한 다른 어려움을 만나고, 따라서 거룩함의 깊이도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하는 개인의 거룩함에 이르는 여정에서 영혼의 진척을 논의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다섯째 심방**에 도달하는 것을 위한 진전을 방해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2008년 7월 15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혼이 심방들을 통한 여정에서 진전하려면 걱정과 용서하지 못함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도록 돕기 위해 왔습니다. 이 두 가지만으로 많은 영혼들이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넷째 심방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만약 영혼이 하느님의 뜻과 일치를 이루는 다섯째 심방에 도착한다면, 그 영혼은 걱정과 용서하지 못함에 굴복할 가능성이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은 이제 그의 마음속에 신뢰로서 오시는 성부의 뜻과 사랑에 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신성한 뜻, 곧 **다섯째**

심방에 도달하고 계속 지내기 위한 관문은 영혼이 그의 마음에 품고 있는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입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은 아버지의 뜻에 완전한 신뢰와 일치로 인도합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천국에 이르는 목표를 성취하는 영혼으로서 설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넷째 심방**에 있는 영혼은 그가 죽을 때 **넷째 심방**에 계속 남아 있으면, 천국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다섯째 심방**에서 체험되는 것처럼 하느님의 뜻과 일치가 사랑과 완전한 신뢰를 통해 달성하는 완덕의 상태는 아닐 것입니다.

2005년 4월 13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그분이 영혼이 영세에 도달하는 은총을 받을 때 각 영혼이 개별적인 방법으로 체험하는 최고의 천국으로서 언급한 것을 설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따라서 토마스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심방**에 있는 영혼들이 가장 높은 천국을 체험합니다. **넷째 심방**에서 가장 높은 천국은 **여섯째 심방**에서의 천국보다 다른 방법으로 체험합니다."*

(성인께서 미소를 지으십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이 심포니 (symphony, 교향곡)를 듣고 있습니다. 교향곡은 완벽합니다. 음악가는 보통사람보다 그 교향곡을 훨씬 더 완전한 방법으로 감상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둘 다 그들의 능력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그 교향곡을 감상합니다."

*"천상의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는 (**넷째 심방**) 영혼은 그에게 가능한 최상의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거나 (**다섯째 심방**) 아버지 하느님의 성심·뜻 안에 잠기는 (**여섯째 심방**) 영혼은 심지어 더 막대한 최상의 천국을 체험합니다.*

모린이 말합니다: "토마스 성인, 성인께서 제게 이런 것을 가르쳐주시는데, 저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토마스 성인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무도 자매가 신학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내가 말하는 대로 써 보십시오. 이해를 얻기 위해 우리 천상 어머니께 요청하십시오."

가장 높은 천국의 상태는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에 관련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에 확실히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토마스 성인께서 2006년 2월 24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더 이상 설명하려고 시도하십니다.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천국의 실재를 더 한층 설명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천국에 들어오는 모두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하여 어떤 영혼들은 연옥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섯째 심방**, 아아! 그렇습니다, 그 **여섯째 심방**은 가장 위대한 성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연옥에서 영혼들이 이 심방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잠기기 까지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여섯째 심방**에 있는 성인들은 지상에 있는 동안에 이 갈망하는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그것은 성인들조차도 모두가 그 성소에 들여지지 않는 너무나 귀중한 심방입니다. **다섯째 심방**의 가장 높은 위치에 순교자들과 다른 성인들이 있습니다. 각 심방은 모두 공로에 따라 일정한 우선순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성인들이 **여섯째 심방**에 아주 가까이에 있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매 현 순간이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파악하기 전에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회개할 때 하느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그분의 자비로 죄들이 용서를 받습니다. 형벌도 또한 일정한 전대사를 통하여 삭제됩니다. 그러나, 여섯째 심방으로 들어감을 결정하는 것은, 영혼이 지상에 사는 동안 얼마나 깊이 그의 마음을 하느님의 뜻에 잠기고 일치가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지상에 사는 동안 하느님 뜻에 잠겨져야 합니다. 이것을 성취한 사람은 아주 적고, 오늘날 세상에서 극히 적은 상태입니다."

앞서 말한 봐와 같이 우리가 **하나 되신 성심의 다섯째 심방 (하느님의 뜻과 일치)**의 영성에 대한 논의의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개인의 거룩함에 이르는 영적여정에 대한 이 논문의 시리즈의 마지막 편 (제19, 20편)으로 우리를 인도할 두 메시지들에 주목할 것입니다. 이 시리즈에서 마지막 편은 **하나 되신 성심의 여섯째 심방 (하느님의 뜻에 잠김)**의 영성에 관심을 집중시킬 것입니다.

이 토론으로 우리를 이끌도록 돕기위해 2007년 4월 2일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주신 메시지를 검토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토마스 성인은 하나 되신 성심의 **다섯째**와 **여섯째 심방** 사이에 기본적인 차이를 논의합니다.이 메시지에서 토마스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섯째**와 **여섯째 심방**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왔습니다. **다섯째 심방**은 하느님의 뜻과 영혼 자신의 의지의 일치입니다. 두 뜻과 의지가 일치할 때, 그것들은 하나 되신 성심의 상본 안에 있는 두 성심처럼 아직도 분리된 실체로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섯째 심방**은 훨씬 더 친밀한 일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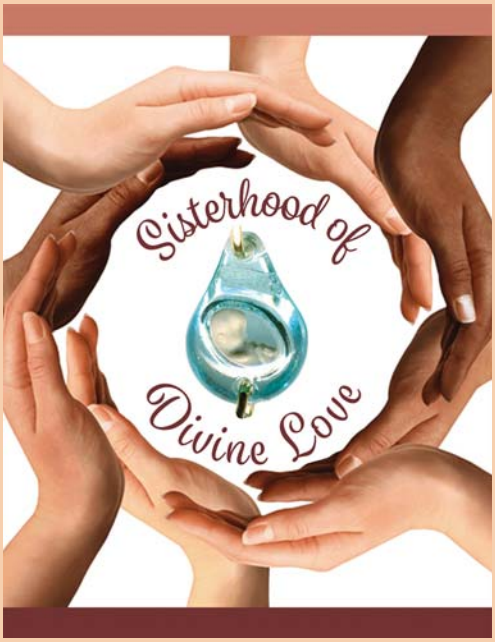
*"**여섯째 심방**에서 인간의 의지가 하느님의 뜻에 잠깁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말하자면 하나로 서로 혼합됩니다. 더 이상 하나를 다른 하나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바오로*

성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 2:20a]. 두 뜻, 곧 하느님의 뜻과 자유의지가 혼합되고, 하나가 다른 하나에 잠기고, 하나가 됩니다."

2002년 7월 27일에 예수님께서 주신 둘째 번의 메시지가 이 마지막 심방 즉, **하나 되신 성심의 여섯째 심방**의 영성에 대한 토의로 우리을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몸과 피, 영혼과 신성 즉, 나의 신성한 성심을 드러내고 너희 앞에 서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다섯째 심방****은 아버지의 신성한 뜻을 통하여 영원하신* ***아버지의 자비가 넘치는 성심 (여섯째 심방)****과 일치한다. 이 신성한 진리를 넘어 뛰어난 다른 어떤 계시도 없다.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여라."*

'영적 여정'에 대한 이 논문 시리즈의 다음 편 및 마지막 편에서, 개인의 거룩함을 향한 영혼의 여정 중 **하나 되신 성심의 이 여섯째** (그리고 마지막) **심방**의 영적인 본질을 밝히도록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더 철저하게 탐색할 것입니다. ■



"나는 지금 이 시간, 거룩한 사랑, 특히 태아를 위한 짧은 묵주기도와 낙태 종식을 위한 묵주기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한 무리의 독신, 미망인, 이혼, 또는 기혼한 여자 평신도들로 하여금 서로 협력하여 일하게 하고 있다. 그들은 신성한 사랑의 자매회라고 불릴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로고(logo, 장식적인 고안)로서 낙태 종식을 위한 태아묵주의 묵주알 하나로 구성된 핀(pin, 배지)을 몸에 지닐 수 있다. 나는 그들의 노력을 축복할 것이다."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 마리아님 – 2016 년 6 월 30 일)

전 화: 440-327-8006 내선 238
이-메일: sisterhoodofdl@holylove.org
웹 사이트: www.holylove.org